

연중 제2주일

기도서 P. 420 B해

제1독서(요수24, 1-2. 15-17, 18)  
제2독서(에 페 5, 21-32)  
복 음(요 한 6, 61-70)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 「생명의 빵과 믿음」

한 기 호 신부

—오늘 주일까지 다섯 주일동안 천상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빵(성체) 대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왔다. 말씀의 전례(복음) 부분에서 다섯 주일이나 성체성사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체성사가 미사전례에서나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이 생명의 빵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극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생명의 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적성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성사— 이보다 더 큰 성사가 어디 있었는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명을 먹인 기적을 하셨을때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탄복했고 왕으로까지 모시려 했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기적은 생명의 빵(성체)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암시였고 바로 이어 당신의 몸을 내주시겠다는 설교를 하시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고, 또 「너무도 어려운 가르침이다」고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다.

—주님말씀의 깊은 뜻은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불신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다. 오늘 성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이때문이었다」고 하셨다. 이어 12사도들에게 「당신들도 떠나고 싶습니까?」 하시자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결사된 믿음을 주님께 드러냈다.

그렇다. 사실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들려줄 이 누가 있었는가?

우리는 때로 주님앞에 불진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 주님이요, 내 주님이시다」고 고백했던 도마 사도의 신앙고백을 끊임없이 되풀이 해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빵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대야 천주교회 주임신부>



## “얼마 안가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요한1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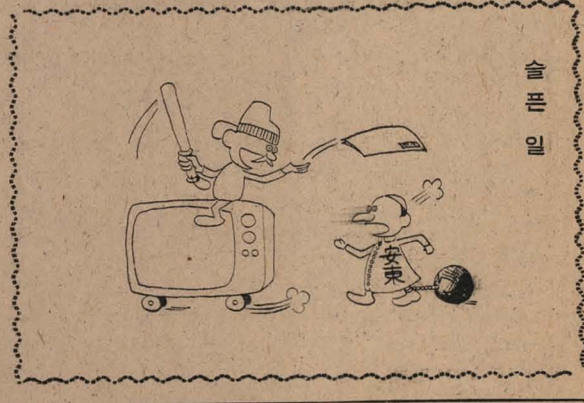
사람의 값어치는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나타난다. 물론 신앙의 척도도 마찬가지다. 한 순간도 예의없이 생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때가 오면 내가 한말을 기억하라하고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이다”(요한 16, 1-4)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써 정말 심판을 받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실 것이다”(요한 16, 11) “그들은 ‘얼마 안가서’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꾀새를 알아 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겼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 버리게 된다. 이와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에 싸여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다.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6, 18-24)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

현대의 치명적 약점을 四無현상이라고 말한다. —무관심, 무기력, 무사고(思考), 무감각—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자신의 영달 뿐인가?

오늘도 목줄을 붙잡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신문, TV, 라디오에서는 조작된 허구의 목소리가 어릿광대의 두백처럼 허허한 하늘과 멍든 가슴에 와 닿는다.

## 숲 정 이 산책



슬픈 일



진실을 밝힌

명동 전국 기도회

가톨릭 농민회 사건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교회측에 쏠는 눈길은 너무도 컸다.

복덩미나 잡혔는지 눈·귀가 멀었는지 도무지 답답하기만한 몇 사람들의 시비로 어지간히도 우려했던 「명동 기도회」, 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성원만은 막을 길이 없었다.

명동성당 설립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린 기도회, 복잡하기로 유명한 이 나라 한 복판을 온통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말았다. 마치 판의 날조된 「허위 조작극」을 심판하고 성토했던 모여든 군중들이라고나 할까? 온자 그대로 정말 구름처럼 물려왔다.

서울 김추기경님을 비롯, 광주·전주·안동·원주·대전·인천·춘천 8개 교구의 주교님들을 위시해서 전국 각 교구에서 활동하시는 현역 신부님들(방인)의 70%가 넘는 400에 가까운 사제들과 1,000여명에 달하는 수도자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올라온 수백명의 평형 및 단체대표, 일반신도 1만여명이 성당은 물론 광장, 길거리, 심지어 건물 옥상까지 꼭 메운 가운데 경건히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를 바쳤고 몇 시간 동안 농성아닌 농성, 시위아닌 시위를 말없이 벌이고 있었다.

이날 한국 정평위 총재 윤대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농민의 권익수호와 의식제발을 위해 헌신한 가톨릭 농민회원을 표창은 커녕, 폭행, 구속하고 그 탄로가 두려워 「허위 조작극」을 꾸며 또다시 힘 없는 농민과 교회를 짓밟고 있는 사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 같은 거짓과 권력의 청포를 즉각 중단 할것을 촉구 하셨다. 또 Y·H사건에도 언급, 잘못된 근로정책의 시정과 교회를 모략하는 행위를 삼가고 당국이 이성을 되찾아 줄것을 당부하셨고, 「오원춘 사건에 대한 주교단·삼임위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셨다.

제2부에서는 한국 정평위의 교회측 태도와 견해를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의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동시 구속, 억류된 모든 양심수인, 민주인사, 근로자, 농민들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특별히 겨우 현장을 빠져나온 안동교구 신부님들로부터 오원춘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교구사황을 듣고 투쟁하고 있는 그곳 현지 소식이 소상히 전해져 장내는 한동안 숙연, 모두들 울분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으며, 또한 정의구현 운동을 하다가 사제로서는 유일하게 다시 옥고를 치루게 된 본 교구 문정원 신부님의 그간의 활동과 재 투옥 경위도 보고되어 참석 한 모든이의 관심과 책임감을 새삼 일깨우기도 했다.

이어서 안동, 전주교구 및 농민회, J. O. C, 정평위의 간절한 기도를 끝으로 조용히 기도회를 마쳤고, 제3부에서는 수녀 장상 연합회와 정의구현 사제단 주최의 철야기도(약500명 참석)가 계속 됐으며, 21일 새벽4시 미사를 기해서는 일부 뜻을 같이하는 사제들과 농민회원 100여명이 「단식농성」을 선언, 명동 지하성당에 모여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모조록 분투하시는 고귀한 분들의 전투를 믿고, 하루 빨리 진리가 밝혀지고 정의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 지기만을 손모아 빈다.

성명서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 현실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총화와 반대되는 극한점에 와있는 실정을 절감한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첫째 제1야당, 둘째신.구.그리스도 교회, 셋째 농민 노동자 단체와 거의 비이성적 상태에서 대립, 충돌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국가의 기본 이념을 벗어나 민족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까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이에 본 정의평화 위원회는 현 시국이 직면한 다음의 난제들이 인권과 화해의 바탕 위에서 전적으로 해결될수 있기를 갈망하며, 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천주교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이사 오원춘 형제는 현지 교회 당국의 보살핌과 사실 확인의 기회가 차단된 감금속에서 범죄 혐의가 꾸며졌다. 우리는 이 사건이 가톨릭 농민회 활동에 대한 일련의 박해 사례로 보고 오원춘 형제의 혐의 내용이 경찰 발표와 판이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오원춘 형제를 비롯 이 사건에 관련되어 연행된 성직자, 신자 진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찰과 수사기관원 30여명이 집단으로 안동교구청에 난입하여 교구사무국장 정호경 신부를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난폭하게 연행한 사실 안동 이외의 지역에서 가톨릭 농민회 간부들이 연행 구속된 사실,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이 각 산업장에서 신자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 전주교구 정평위 위원 문정원 신부가 과거 3분사제 복역자중 유일하게 재 투옥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한국 천주교회에 제2의 순교시대가 도래하는 위기를 절감한다. 우리는 단호히 교권회복과 구속된 성직자 신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3. 신.구 그리스도교회의 산업선교가 배후 조정을 했다고 지탄되면서 강제해체된 여공들의 실업상태를 구제하고, 폭행을 가한 경찰관, 시경국장, 내부부장관을 인책 처벌하고, 여공들을 배후 조정했다고 구속된 3명의 양심적 민주인사들을 석방하고, 노동부조리를 정부 당국이 솔선 시정하기를 촉구한다.

4.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이른바 통령당 재건 간첩단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이, 폭심한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일을 주장하는 바, 고문으로 공산당을 만들어 내는 악제의 근절을 보이기 위해 이들 피고의 고문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백인하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5.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에서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강대국에 의한 신식민주의 등 개념은 유물론적 공산독재를 배격함과 동시에 현대 그리스도교회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견해를 당국은 알아야하며, 냉전시대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고정 관념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하물며 진취적 용어 한두 마디로 크리스찬을 용공시하는 우리를 더 이상 법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6. 이미 누차 촉구된 바와 같이 시인 김지하, 문익환 목사, 학생, 노동자, 동아투의 소속 기자들을 비롯 아직도 감옥에 있는 수많은 양심수인들을 국민 화해와 인권의 차원에서 조속히 석방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기본 인권인 언론자유를 추락하면서, 한편으로 구속하고 한편으로 석방하는 악순환을 연속시키는 임시 비상입법의 장기 적용을 조속히 철폐하기를 촉구한다.

7.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등 지도적 민주 인사들이 상투적으로 자백에 언급되는 반인권적 조치를 당국이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모든 불행한 사태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주의 한국의 장래에 신선한 활로가 열리기를 열망하는 바이다.

1979. 8. 20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 우리는 짓밟혀도 힘이 없습니다.

판권 조작에 속지 말고 신앙정신 모읍시다!





—오원춘씨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최근 교회 내외에 크게 문제 돼있는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원 오원춘(알퐁스)씨에 관한 일을 두고서,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과 안동교구에서 파악한 것이 상반되고 있어서 교회내에서도 당혹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음으로 그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그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오원춘씨가 지난 5월 5일 영양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로 부터 포항으로 납치돼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후 울릉도에 2주간 동안 강제 격리된 채 있었다는 안동교구의 조사가 진실임을 확신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수사 당국이 위의 사실을 허위 날조된 조작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측 조사에 혐의를 씌우고 있음에 대하여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3. 더구나 자기 신도중의 한사람인 오원춘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온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와 다른 신부들과 신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갖가지 부당한 압력에 대해, 한국교회 사목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주교들은 엄중한 항의를 표하는 바이다.
4. 앞으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처리를 주시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전 교회적인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5. 차체에 우리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가톨릭 농민회와 신자사회 일각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농민과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익 옹호와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건전한 단체임을 재천명하는 바이다.
6.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정의를고 평화스럽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국가 사회의 공동선이 더욱 더 증진되도록 모든 신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1979년 8월 20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요심이 (317) 김병오

자유당 정권때 죄없는 김성주씨를. 광복 20년

엄청난 죄를 조작하여 죽였구나!

악한 일은 일시는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수는 없는 법이야!

◀공 고▶

정의·평화를 위한 모금

우리의 계속적인 사회정의 구현 활동과 민주·인권 회복 운동을 위하여 또 구축된 성직자, 농민, 근로자, 민주인사, 양심수인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값진 성금과 협조를 바랍니다. 숲은 독지가를... 직접 또는 본당 신부님을 통해 교구청이나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정평위—

사진자료·사진기계·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우대

태 광 사

주·유·가애마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③ 6346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 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점 옆)  
전화 ③ 6219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난방닥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 주 광 고·공 업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③ 1585

M'GREGOR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매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③ 4451번  
유 율리아나

글·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로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겨)  
☎ 2-3301 (자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식, 보료

문 화 양 행

오 증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백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수시 접수〉

신설! 새로이 인가된 학원

주 산·타 자 〈주·야간〉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새로운 타자기 완비

김계음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판인 김제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4429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정의평화를 위한 미사...8월 27일<월> 오후 6시, 인천 답동, 광주 호남동 성당에서
  2. 전교사 연수회...사정상 무기한 연기 합니다.
  3.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일자 정정...9월 16<일> 오후 2시  
범위-루카복음, 주요기도문, 가톨릭교리서 18과~42과(그리스도 제명편 앞)
  4. 제7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예선...오늘 오후 2시, 합열성당에서
  5. 제7지구 청년연수회...29일<수>~31일, 화산성당에서
- 정의평화를 위한 성금-장계청년회 1만원, 부산 당감 오수영 신부님 3만원, 남원 익명 1만5천원, 중앙 방지겨 3회 2만원, 순정이 이프란치스코 가정 1만원 감사합니다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사도희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 27일<월> 저녁 8시30분
  2. 유아세례 : 31일<금> 어머니미사 후
  3.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하세요
  4. 미사참례때 성경, 성가집 지참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254,911원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활인구

1. 애령주일 : 10시미사 후(특별 위령기도)
  2. 수요일기도회 : 29일 오후 8시30분
  3. 감사 : 체대 꽃봉원-송영완
- 성모승천 축일헌금 : 118,270원

####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김성복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사도회 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견진성사를 위한 성령세미나 : 9월 3일부터 8일까지  
견진성사 접수마감이 31일까지 입니다.  
견진을 안받으신 분은 이번에 꼭 받으세요
4.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귀하의 교무금은? 완납하셨는지요

####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요안회 월례회·신협이사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이강노씨 덕)
3. 바자회 : 8월 27일~29일  
형제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4. 주일학교 개학 : 9월 1일부터
5. 숲정이 유치원 개학 : 9월 3일부터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섭  
사도 회장 유제상

1. 진복회·부녀회 월례회 : 미사후
2. 성령기도회 : 8월 28일 저녁 8시
3. 주일학교 개학 : 오늘 오후 2시  
많은 어린이 주일학교로 보내주세요
4. J.O.C 회원 성물판매 : 경향잡지·소년 찾아가세요
5. J.U.C 한마음회 회합 : 월요일 저녁 8시  
뜻이 있는 분은 참석하세요
6. 밀린 봉헌금 빠른시일에 납부하시고 자기 봉투를  
확인합시다
7. 사도회 월례회 : 9월 2일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익  
보좌 신부 유수종  
사도 회장 유석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30분
2. 미사시간 변경 : 오전 5시 반, 오후 7시 반
3. 주일금 봉투 사용 현황

동 별	미사대상자수	미사참례수	%
진 동	307명	159명	52
동 교 동	417	151	36
서 교 동	168	64	38
동완산동	374	166	44
서완산동	115	27	23
풍 남 동	351	147	41
남노송동	170	66	39
중.경.다	218	61	28
성 심	55	24	44
기 타	202	44	22
예비자		30	
계	2,377	939	40%

####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

- ※ 9월은 복자성월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견진교리 : 9월 3일~15일 매일저녁 8시30분  
(주일과 화요일 제외)
  3. 봉헌금 미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히메테사씨 지도  
매주<화> 저녁미사 후-박신부님 지도

####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인권탄압 중지하고  
민주인사 석방하라



19년 9월 부자성월 전주교구 순정키본당 행사표

일	요일	축일	행사예정	비고
1	토		누깁다부녀회 월례회...주일학교개학	
2	일	연중제 22주일	사도회 월례회	
3	월		술장이 유치원 개원식...교구남부일	
4	화	모이세 축일	교구참사회	
5	수			
6	목			
7	금			
8	토	성모성탄축일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및 주보찬례 (9주24)	백노
9	일	연중제 23주일		
10	월			
11	화		교구호인상감일	
12	수			
13	목			
14	금			
15	토			
16	일	연중제 24주일	성모회 월례회...중고생교리경시대회	
17	월			
18	화			
19	수			
20	목		전교사 연수회 → 22일	
21	금	성마리아축일	술장이 유치원 가을소풍	
22	토			
23	일	연중제 25주일		
24	월	성마리아축일		주분
25	화			
26	수	순교복자 축일		
27	목	성빈첸42축일		
28	금			
29	토	성가브리엘 축일 성라파에 축일		
30	일	연중제 26주일	순교자헌양대회...요안회월례회...유아세례식(94)	
31	월			



